

성남보호관찰소 야탑 이전 논란... "문서고, 시청으로" 갈등 일단락

김순기 기자 발행일 2019-04-17 제10면

은수미 시장·대책위 대표 합의
오늘 트럭 이용 문서 옮길 예정
한달째 이어온 천막 농성 해제

성남시 분당구 야탑지역 주민들이 집회·농성 등을 벌이며 크게 반발했던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성남보호관찰소) 야탑청사의 문서고가 성남시청으로 옮겨진다.

또 야탑 지역 주민들은 30일째 이어왔던 야탑청사 앞 천막 농성을 풀기로 해 성남보호관찰소를 둘러싼 갈등-대립(4월 8일자 9면 보도)이 일단락됐다.

성남시와 성남보호관찰소 야탑 이전 반대 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은수미 시장과 대책위 대표 등은 17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만나 이 같은 사안에 합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야탑청사 문서고는 회의실과 더불어 성남보호관찰소 측이 지난 3월 15일 기습적으로 설치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보호관찰소를 이전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반발했던 핵심 사안이다.

지역 주민들은 이후 야탑청사 앞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왔고, 지난 3월 29일에는 분당구 야탑역 광장에서 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보호관찰소 야탑동 이전반대 촛불집회'를 갖기도 했다.

이 중 회의실의 경우 지난 3일 성남시·법무부·김병관(더불어민주당·분당갑) 국회의원이 합의한 '성남보호관찰소 정상화'를 위한 4가지 사항에 '설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해소된 상태다.

반면 문서고는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야탑 지역 주민들은 지난 5일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뒤 천막농성을 이어왔다.

이런 문서고는 성남시가 시청 내에 마련한 공간으로 옮겨진다. 시는 17일 저녁 야탑 청사의 문서들을 트럭을 이용해 성남시청으로 옮길 예정이다.

'성남보호관찰소 야탑 이전 반대 대책위원회' 윤혜숙 위원장은 경인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성남시가 문서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만큼 천막농성 등의 집단행동은 하지 않고, 법조단지 확정을 위해 올해 말까지 함께 공동 노력하기로 한 지난 3일 합의한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